



즉시 배포용: 2017년 3월 26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주 정부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신규 조치 발표

주지사, 주 정부 다양성 증대를 위해 자문 위원회의 다양성 및 포용 권고안 채택

새 법안은 주 정부 공무원 제도를 현대화하고 소수 민족 고용을 촉진할 것

Cuomo 주지사의 뉴욕 주민을 위한 기회 확대 전통에 기초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다양한 우수 후보자 채용을 가속화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포함하여, 주 정부 인력의 소수 민족의 수를 늘리는 대담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 이는 주지사의 다양성 및 포용 [자문위원회](#)가 권고한 조치입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뉴욕은 다양성을 포용하고, 사회 경제 계층 이동의 장벽을 없애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,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약속하는 오래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문 위원회에서 권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, 주 정부 인력의 소수 민족 과소 표시를 해결하고 우리의 리더십이 뉴욕주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강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.”

Cuomo 주지사는 위원회 권고사항 10개 전체를 승인했으며, 이는 뉴욕주의 현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5개년 전략 계획(Five-Year Strategic Plan for Diversity and Inclusion)에 통합될 것입니다.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다양한 후보자 채용 가속화를 위한 사전 입법안 마련

이 법안은 공무원법을 개정하여, 채용 확장 및 직무 이동의 유연성 확대를 포함하여 주 정부의 다양한 우수 후보자 채용을 가속화하고, 경력 이동 기회를 넓힐 것입니다.

공공 서비스 진로를 장려하기 위한 선별 채용 전략 수립

뉴욕주는 뉴욕주 및 산하 기관을 가장 주목할 만한 채용 브랜드로 만든다는 목표로 전략적 홍보 및 마케팅을 실행하여 공공 서비스 진로의 혜택을 늘릴 예정입니다. 이러한

노력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공공 서비스 가치에 관해 교육하고, 새롭고 다양한 인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

주 공무원 시험 장소 확장

공무원 조직부(Department of Civil Service)는 SUNY 및 CUNY와 같은 고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, 커뮤니티 기반 시설로 시험 장소를 확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채용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시험 준비 서비스를 강화시켜 합격자 증대

공무원 조직부(Department of Civil Service)는 신규 시험 준비 자료를 개발 및 홍보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장려하고, 미래의 성공을 위해 수험생이 시험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이에는 노동부 직업 센터(Department of Labor Career Centers)의 활용과 시험 준비 자료를 보다 현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배포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및 기타 기술의 활용 증대가 포함됩니다.

기관 리더십을 위한 다양성 및 포용 교육 필요

기관의 리더 및 관리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유치, 고용, 유지 및 승진시키기 위한 지식,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모든 직원이 직장 평등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모든 기관장, 임원진 및 직원 채용 및 유지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, 보다 포괄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, 직장의 다양성 및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.

장애가 있는 개인 및 퇴역 군인을 위한 주지사의 채용 프로그램 참여 증대

공무원 조직부(Department of Civil Service)는 장애가 있는 개인 및 퇴역 군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뉴욕주 교육부 성인 직업 및 평생 교육 서비스국(State Education Department's Office of Adult Career and Continuing Education Services), 직업 재활 센터(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) 및 보훈부(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)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 뉴욕주 공무원법 제 55-b조는 뉴욕주 공무원 위원회(New York State Civil Service Commission)가 장애가 인정되는 응시자로 채워지는 비경쟁 그룹의 채용인원을 1,200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 또한 이 법의 제 55-c조는 참전용사로 인정 받은 응시자로 채워지는 비경쟁 그룹의 채용인원을 500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

다양성 관리 전문 지식을 갖춘 후보자 선별

공무원 조직부(Department of Civil Service)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고 있는 주 정부 HR

전문가가 채용 및 인력 관리 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. 이러한 툴 중 하나는 경쟁 시험의 일부로 사용되는, 훈련생이 다양성 관리와 평등 기회 원칙을 이해하고 직무의 필수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필요성이 입증되었을 경우 공석을 메울 수 있는 다양성 관리 옵션(Diversity Management Option)입니다.

행정 정책팀 기관 대리 취임

행정부 부커미셔너는 공무원 조직부(Department of Civil Service)와 뉴욕주 인사 위원회(New York State Personnel Council)가 공동 주최하는 HR 프로그램 및 정책 회의에 참석합니다. ADAPT (Agency Deputy for Administration Policy Team) 회의는 다양성 인력 관리 HR 프로그램 및 정책 문제에 관한 행정관 수준의 참여와 토론을 필요로 하며, 주 정부 기관이 전략적 리더십과 책임 전략을 고수하고, 일관된 노동 관리 관행을 따르며 다양성 및 포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니다.

차별 철폐 조치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갱신

현 차별 철폐 조치 관리자 직무는 역사적으로 규정 준수에 기반한 역할로 간주되어 왔습니다. 뉴욕주 노동력의 성공을 이끌어 내고,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도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, 현 차별 철폐 조치 관리자의 직무 책임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하여 다양성 전문가가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직무 역량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.

일관된 주 전역 다양성 및 평등 고용 기회 가이드라인 개발

일관되고 잘 문서화된 다양성 및 EEO (Equal Employment Opportunity) 가이드라인을 갖추면 직장에서의 평등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임을 모두에게 명백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직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동과 공정성 및 평등을 위한 기준을 재정립할 것입니다.

국무장관 Rossana Rosado와 자문 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Cuomo 주지사님은 늘 다양성과 포용의 대변자이셨습니다. 자문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여, 주지사님의 뉴욕주 인력 비전이 뉴욕주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돕는 이 중요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”

하원의원 Marcos Cresp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Cuomo 주지사님은 인종, 성별 또는 문화에 상관 없이, 모든 뉴욕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회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온, 다양성 및 포용의 끈기 있는 옹호자였습니다. 자문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,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, 근면한 개인이 뉴욕주 설립의 근간인 경제 성장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뉴욕에서, 다양성이야말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더욱 튼튼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Cuomo

주지사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.”

하원의원 Nick Per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, Cuomo 주지사님이 저희의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주 정부가 뉴욕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도록 대담한 조치를 취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. 이러한 조치는 주 정부로 유능하고 다양한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, 이는 다시 우리 위대한 뉴욕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, Cuomo 주지사님과 협업하여 다양한 후보자들이 좀 더 쉽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, 뉴욕주의 모든 이들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”

최고 다양성 책임자(Chief Diversity Officer) Rose Rodri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, 우리의 노동력은 가장 강력해집니다. 주 정부가 뉴욕주의 다양성과 재능의 폭을 보다 잘 대표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. 시험 교육 및 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, 모든 능력 및 배경의 뉴욕 주민들이 주 정부 일자리를 얻고, 공정한 임금을 받고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신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며, 모든 이들을 위해 다양성, 포용성 및 경제적 기회의 핵심 원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”

공무원 조직부(Department of Civil Service) 대행 커미셔너 Lola W. Brabha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이러한 조치는 다양성 강화와 평등한 기회 및 모든 뉴욕 주민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Cuomo 주지사님의 전력을 강조합니다. 자문 위원회 활동을 통해, 뉴욕주 정부는 미래의 인력을 전략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”

주지사의 다양성 및 포용 자문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Rossana Rosado 국무장관 (의장)
- 푸에르토리칸/히스패닉 태스크포스 의장(Chair of the Puerto Rican/Hispanic Taskforce) Marcos Crespo 하원위원
- 흑인, 푸에르토리칸, 히스패닉 및 아시안 입법 간부회 의장(Chair of the Black, Puerto Rican,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) Nick Perry 하원의원
- 최고 다양성 책임자(Chief Diversity Officer) Rose Rodriguez
- 공무원 조직부 커미셔너(Commissioner of Civil Service) Lola W. Brabham
- 노동부 차관 Elizabeth de León Bhargava
- 환경시설공단(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) 이사장 및 CEO Sabrina Ty
-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(Empire State Development) Global NY 외무 책임자 Linda Sun

Cuomo 주지사는 지난 2016년 3월 다양성 및 포용 자문 위원회를 창설하여 다양한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, 고용 및 유지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규정하고, 개선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현재 소수민족은 주 정부 인력의 약 2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는 2006년의 23.2%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. 백인 직원은 뉴욕주 정부 노동력 전체의 58.4%를 대표하나, 뉴욕주 정부 인력의 74%를 차지합니다.

자문 위원회의 임무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관련 데이터 및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, 기존 공무원 시스템의 문제와 기회를 규정하며, 주요 주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. 주 정부의 다양성 및 포용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고, 이 문제에 밝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얻어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